

# 1990년대 이후 문학/문화 연구와 그 시차\* \*\*

- 기원론, 문화론적 연구, 미적 근대성론을 중심으로 -

이철호\*\*\*

## 〈차 례〉

1. 1990년대 문학/문화 연구사를 거슬러
2. 문화론적 연구 담론과 그 시차적 관점
3. 내면, 냉소적 주체, 진정성
4. 기원론 이후에 남겨진 것

## [국문초록]

1990년대 이후 근대문학연구와 현장비평 담론간의 논의가 상당 부분 교차하고 또 개별 비평가와 연구자 역시 서로 중첩되면서 어떤 착시가 발생했다는 데에 본고의 주된 문제의식이 있다. 첫 번째 시차는 근대성의 기원을 비판적으로 탐색한 이들에게 다시 근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며, 두 번째 시차는 근대문학과 현장비평 담론이 중복되면서 변별되어야 할 담론장이 서로 겹쳐 보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차는 식민지 근대성론을 전도된 형태의 내발론으로 비판하는 논조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착시가 1990년대 문학/문화 연구의 공적을 과소평가하거나 폄하했다고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논의의 선후관계를 뒤바꾸고 담론간의 차이를 단순화함으로써 이 시기에 대한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지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착시와 무관하지 않은 맥락에서, 지난 20여 년간 기원론, 문화론적 연구, 미적 근대성론을 통해 축적된 문학연구의

\* 이 논문은 2023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 초고는 한국현대소설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1990년대의 역사화: 문학 장의 변화와 미디어'(2021. 6.12)와 '후일담과 문화론 사이: 90년대 문학 담론 지형'(2022. 12. 10)에서 발표되었다. 필자로서는 문제제기에 따른 주요 쟁점과 분석 대상이 과분한 것이어서 불충분한 대로 마무리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경과했다.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발표의 기회를 주신 노지승 선생님과 토론해 주신 강용훈, 손정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대구고대 국어교육과 조교수

주요 성과 가운데 일부는 그 급진성을 급격히 상실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주제어] 1990년대 이후 문학/문화 연구, 기원론, 문화론적 연구, 미적 근대성론, 시차

## 1. 1990년대 문학/문화 연구사를 거슬러

1990년대 문학/문화 연구사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논의들 중 이 연대를 다른 무엇보다 1980년대와의 ‘단절’로 이해한 지난 세대의 문학사적 감각을 거슬러 ‘연속’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들이 돋보인다.<sup>1)</sup> 그와 더불어 1990년대 한국문학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용어인 개인, 내면, 진정성 역시 자신의 후광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진정성 담론이 오늘날 미심쩍은 이유란, 여기에 1990년대 문학을 특권화하려는 의도가 비교적 명백하고 또 그것이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의 반영임에도 마치 보편적인 가치라도 되는 것처럼 다루어졌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비판들을 종합해 보면 ‘진정성’과 ‘내면’과 ‘미적 근대성’은 등가적 관계를 이루면서 ‘문학주의’로 수렴된다.<sup>2)</sup>

그런데 문학주의라는 맥락에서 개인, 내면, 진정성 담론에 가해지는 비판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은 1990년대 이후 문학/문화 연구를 바라보는 관점에 내재된 어떤 착종이라 할 수 있다.

진정성 담론은 근대 문명 전반을 부정하며 타락한 문명을 문학(예술)으로 초극할 수 있다고 보는 미적 근대성=반근대주의로 전환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담론이 문학에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신성한’ 아우라를 부여함에 따라 문학 언어의 빈곤화가 초래되었다는 데 있다. 미적 근대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기의 부모나

1) 배하은,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 1980-90년대 문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151~160쪽 참조.

2) 조연정에 따르면, 문학주의는 우선 “어떤 이념이나 논리도 표방하지 않는다”는 『문학동네』의 발간 이념에 잘 표현되어 있으나 그 슬로건과 달리 특정 개념과 창작 경향을 선호하는 비평적 움직임을 가리킨다. 조연정, 「‘문학주의’의 자기동일성: 1990년대 『문학동네』의 비평 담론」, 『상허학보』 53, 상허학회, 2018, 13~14쪽.

자기가 속한 역사적 시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언어도 우연하다는 점을” 망각함으로써 문학을 신격화한다. …(중략)… ‘진정성=내면’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근대문학, 문학사, 문학주의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우연을 통한 문학의 탈신격화**이다.<sup>3)</sup> (강조 - 인용자)

여기서 탈신격화의 대상은 “미적 근대성=반근대주의로 공고하게 쌓아 올린 문학주의라는 성체”<sup>4)</sup>이며, 그것을 무너뜨릴 방법은 ‘우연’, 즉 문학을 구성하는 개념과 제도의 ‘역사성’을 과감히 폭로하는 일이 된다. 1990년대 이후 문학연구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이른바 기원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당대 한국문학 담론 내부에서 (탈신격화하는) 기원론과 (신격화하는) 문학주의는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1990년대 이후 이른바 근대문학연구와 현장비평 담론간의 논의가 상당 부분 교차하고 또 개별 비평가와 연구자 역시 서로 중첩되면서 어떤 ‘착시’가 발생했다는 데에 본고의 주된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한 착시가 1990년대 문학/문화 연구의 공적을 과소평가하거나 폄하했다고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논의의 선후관계를 뒤바꾸고 담론간의 차이를 단순화함으로써 이 시기에 대한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지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착시와 무관하지 않은 맥락에서, 지난 20여 년간 기원론, 문화론적 연구, 미적 근대성론을 통해 축적된 문학연구의 주요 성과 가운데 일부는 그 급진성을 급격히 상실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그리고 보면 더 이상 기원론, 문화론적 연구, 미적 근대성론이라는 타이틀로 자신의 연구를 정의하거나 의미 부여하지 않는 시점에서, 이를 재론한다는 것은 일종의 시대착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지난 세대의 문학/문화 연구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면, 역사(주의)를 거스르는 작업은 어떤 식으로든 부단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안지영, 「문학' 혹은 '근대'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 : (포스트)진정성의 탈구축과 90년대 미적 근대성 비판」, 『상허학보』 63, 상허학회, 2021, 578~579쪽.

4) 안지영, 위의 글과 동일함.

## 2. 문화론적 연구 담론과 그 시차적 관점

앞서 언급한 1990년대 이후 문학/문화 연구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시차는 2000년대 초반 발표된 천정환의 글에서 비롯되었다.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2007)은 결정적인 획을 긋게 될 하나의 역사적 전환, 즉 ‘문학에서 문화로’를 공식화한 글로서 주목된다. 보통 문화 연구라 통칭되는 새로운 경향의 연구방법론을 다시 문화론적 연구라 명명하는 가운데 여기에 이념적, 실천적 의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선언적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 주요 쟁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는 선구적이다. 이 글은 이보다 앞서 발표된 「새로운 문화연구와 글쓰기를 위한 시론」(2004)과 함께 초창기 문화론적 연구의 성격과 의의를 명확히 밝혀준다.

### 1) 기원론의 경우

이 글의 저자는 문학/문화 연구의 새로운 흐름을 진단하며 “근대 문학주의”와 “문화적 현실”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그가 말하는 문학주의란, 우선 역사적으로는 ① 정치적 계몽주의 문학, ② 내면성의 문학(과 모더니즘 소설), ③ 대중적 낭만주의 문학이고, 다시 2000년대 초반의 시점에서 보자면 “작은 문학주의”를 지칭한다. ‘작은 문학주의’는 “자명해보이는 모든 규범과 제도를 회의의 대상으로 놓는 태도 자체”<sup>5)</sup>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문학 이후의) “근대 문학주의자”와 동류이다. 여기서 1990년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어떤 착시가 주목된다.<sup>6)</sup> ‘(근대)문학’이라는 개념의 제도적 형성을 도외시하는 연구자·비평가들을 향해 ‘문학주의’라 평가하지만, ‘문학주의’로 적시된 이들

5) 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28쪽.

6) 앞의 논문에서 조연정은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문학사가 어떤 착시나 왜곡 없이 서술되기 위해서는 『문학동네』 비평 담론의 프레임을 해체하고 당대의 문학장을 좀더 투명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문학/문화 연구에 대한 사후적 비판들 속에도 착시 혹은 시차가 나타난다는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다. 이는 1910-20년대 문학 연구와 1990-2000년대 소설 비평 담론이 서로 공존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2장에서 다룬 서영채의 논문 및 평론들이라 할 수 있다.

이야말로 그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대성의 기원을 비판적으로 탐색한 이들에게 다시 근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아이러니를 피하기 어렵다.

1990년대 이후 한국문학연구의 장에서 제기된 한국 근대문학의 장르, 개념 자체의 성립에 대한, 그리고 독자, 매체, 문단, 정전 등 한국 근대문학의 외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 성과로 나온 연구들을 상기해보자.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가르쳐준 것은 무엇인가? **근대문학의 제 규범과 제도, 그리고 심지어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 근대 문학사가 민족주의와 근대적 미학주의가 모순적으로 결합됨으로써 형성된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미학적 '자율성'과 문학사의 정전 또한 간단없는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 또한 알게 되었다. 근대문학사의 기원을 찾는 작업 자체가 근대문학사를 해체하고 다시 쓰기 위한 작업의 시작점이 아니겠는가. 7) (강조 - 인용자)

천정환은 한국문학 연구와 관련해 1990년대를 탈신화화의 연대로 이해하고 그 주요 대상으로 (근대)문학, 문학사, 미적 자율성을 지목한다. 그런데 '민족주의와 근대적 미학주의가 모순적으로 결합됨으로써 형성된 상상의 산물'이 바로 근대문학이라는 논평은 공고롭게도 이 글이 '작은 문학주의'라고 평한 황중연의 「문학이라는 역어」(1997)와 그 논문이 보여준 성과로부터 연유한다. “이광수는 문학을 감각적, 감정적 삶과 연결하여 심미화하는 동시에 국민적 주체를 산출하는 민족주의적 헤게모니에 편입시켰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8) 기원론의 저자들이 그 기원론 자체를 부정하는 문학주의자로 재

7) 천정환, 위의 글, 15~16쪽.

8) 황중연, 「문학이라는 역어: '문학이란 何오' 혹은 한국 근대 문학론의 성립에 관한 고찰」, 『동약어문논집』 32, 동약어문학회, 1997; 「탕이를 위한 비평」, 문학동네, 2012, 478쪽. 기원론이 보여준 (근대)문학 개념 및 제도에 대한 인식론적 채택 작업이 김동식, 권보드래, 손정수, 김현주, 강용훈, 소영현 등에 의해 더욱 심화되는 과정의 비평사적 의미에 관해서는 강용훈,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의 변화 양상과 또 다른 문학/비평사 서술」, 『민족문학사연구』 72, 민족문학사학회, 2020, 183~193쪽 참조.

규정되는 상황은, 1990년대 이후 문학/문화 연구를 회고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첫 번째 시차’—기원론의 저자들은 저만치 멀리 있지만. 기원론의 성과는 여기 가까이에 있는—로 기록할 만하다. 다시 말해, 문화론적 연구는 기원론의 성과를 보편화하면서 동시에 그 보편성으로부터 기원론의 저자를 소거시킨다. 그것은 ‘기원론의 전유’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무)의식적 착시는 기원론이 아니라 실은 문화론적 연구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일상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은 일상생활의 세부와 그 이면에서 이데올로기적 기원을 폭로하는 작업이 문화 연구의 기본임을 일러준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론적 연구 자체가 문화를 가지고 하는 기원론이다.<sup>9)</sup> 실제로 이 논문 이후에 천정환이 펴낸 『근대의 책읽기』는 다른 무엇보다 독자(혹은 독서대중)의 “기원에 대한 탐색”<sup>10)</sup>이고, 『1960년을 묻다』(2012)의 경우에도 4.19라는 “기원에 대한 서사”<sup>11)</sup>로 이해된다. 기원론과 문화론적 연구는 여러 면에서 밀착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온당하다.<sup>12)</sup> 그럼에도 문화론적 연구(자)를 주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원론의 일부는 전유하고 또 다른 일부는 타자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 2) 미적 근대성론의 경우

천정환은 한국문학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 하나가

9) 이는 지젝의 표현에 대한 패러프레이즈이다. 슬라보예 지젝, 「신성한 똥되기의 참을 수 없는 무거움」,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384쪽; Zizek, “The Unbearable Heaviness of Being Divine Shit”, *The Parallax View*, Massachusetts: MIT Press, p. 191.

10) 손정수, 「트로이의 목마: 문학 연구의 대중성과 자율성을 둘러싼 아포리아들」, 『문학동네』 39, 문학동네, 2004.

11) 김영찬, 「반복과 종언 혹은 1960년대 문학/문화연구의 문제들」, 『사이間SAL』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645쪽.

12) 이와 다른 맥락에서 이경훈은 문학의 탈식민화를 강조하는 입장(하정일)과 탈영도화를 강조하는 입장(천정환)이 풍속사 연구와 관련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문학/비문학의 경계에 집착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르페우스의 변명」, 『대합실의 추억』, 문학과지성사, 2007, 30쪽.

“내면성의 문학”이다.

이는 1910년대 유학생 문학으로부터 비롯되어, 1930년대 이상, 박태원 등의 모더니즘 소설에서 개화하고 1980년대의 이인성, 윤후명, 최수철, 그리고 최근의 작가들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모더니즘 문학과 더불어 내면성의 소설은, ‘현대’를 살아가야 하는 개별자의 고립과 개인주의를,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근대적 ‘예술’의 단자성을 구현한다. 이 소설은 예술적 전위로서의 성격과 “새로움의 역사철학”(아도르노)을 구현하는 ‘미적 근대성’을 존재 의의로 한다. ‘미적 근대성’은 근대에 대한 개인적, 미학적 저항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중략)… 그러나 이는 읽히지 않는 것 자체를 자신의 본성이자 자원으로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계열의 문학은 때때로 ‘순수문학주의’나 정치적 우익의 논리와 접촉하여, 첫째 부류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순수-참여전쟁’ 같은 것은 그 싸움의 한 역사적 사례이며, 문학사의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 구도 또한 이 대립의 하나의 줄기를 일컫는 것이다.<sup>13)</sup>

새로운 문학/문화 연구의 가능성을 대중문화의 ‘하방’에서 모색하는 이 글의 저자에게 내면성의 문학, 곧 미적 근대성은 엘리트문화의 전유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학지광(學之光)』 세대의 미학주의부터 1930년대 모더니즘과 김동리를 거쳐 비교적 최근의 작가들까지 미적 근대성으로 통칭하는 방식은 몇 가지 질문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박태원과 김동리 소설을 어떻게 균질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차치하더라도, 순수-참여나 리얼리즘-모더니즘 논쟁을 불러와 미적 근대성론을 역사화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동일시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문화론적 연구를 고평하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영토에서 미적 근대성론을 배제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과연 미적 근대성론과 문화론적 연구는 서로 분리될

13) 천정환, 앞의 글, 20쪽. 미적 근대성 계열의 문학이 역사적 시효를 다했다는 진단은 같은 글에서 수차례 반복된다. “오늘날 내면성의 문학의 경우도 미적 전위로서의 존재 의의와 근대 비판의 선도적 역할은 거의 잃은 채로 존재한다.”(22쪽) 그럼에도 결론에 이르러 문화론적 연구의 가능성을 “미와 윤리의 긴장과 융합”(32쪽)에서 찾는다.

수 있는가. 앞으로 상론하겠지만, 문화론적 연구는 기원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기원론이 담론적 뿌리를 둔 미적 근대성론과도 밀착되어 있다. 일례로 ‘근대 청년의 문화정치학’이란 부제가 붙은 『문학청년의 탄생』이 주목한 것은 “내면을 가졌으나 현실과 불화하는 청년의 표상”, 곧 “미적 청년”이었다.<sup>14)</sup>

다른 한편, 『미적 근대성과 한국문학사』의 저자는 기원론적 연구 동향에 기대를 표하면서, “한국근대문학의 기원과 역사적 변이를 탐구하는 작업은 거대한 보편적 근대성, 동일성으로서의 근대성의 미망에서 벗어나 문학과 문학 제도의 세밀한 분석을 전제로 한국근대문학사 내부의 자기 모순을 투철하게 인식하는 태도를 요구받고 있다. 그 요구야말로 한국근대문학의 근대성을 그 내부로부터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탐구의 조건이다.”<sup>15)</sup>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광호가 미적 근대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문학사란 동시대의 기원론과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 결속 가능하다. 또 이 논평에서 의미심장하게 여겨지는 구절은 ‘자기 모순’이다. 새로운 도래를 천명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과연 문화론적 연구 담론이 그러한 의미에서의 자기 모순을 응시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sup>16)</sup> 오히려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기원론과 미적 근대성론을 전유하거나 배제하는 방식, 그것이 문화론적 연구가 새로운 연대를 맞이하면서 자신이 통과한 시대와 결별하는 방식이었다.

### 3. 내면, 냉소적 주체, 진정성

1990년대 문학에 관해 논한 글에서 강동호는 두 개의 상반된 경향이 공존하는 현상을 언급한 바 있다. “근대성의 기원을 탐문하는 학술장의 해체적인

14)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17쪽.

15) 이광호, 「모순으로서의 한국문학사」, 『미적 근대성과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1, 25~26쪽.

16) 문화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는 박현호, 「문화연구의 정치성과 역사성: 근대문학 연구의 현황과 반성」, 『민족문화연구』 5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0; 「문학 '사' 없는 시대의 문학연구」, 『역사비평』 75, 역사문제연구소, 2006 참조.



작업과 1990년대를 기원(문학 본연적인 것)의 복귀로 설명하는 비평사적 내러티브가 동시대에 출현했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sup>17)</sup> 전자가 ‘기원론’이라면 후자는 (내면성, 진정성, 미적 근대성 삼위일체로서의) ‘문학주의’이다. 그러한 공존은 물론 근대문학의 기원을 탐색한 ‘연구자’와 문학주의로 지목된 현장 ‘비평가’ 그룹이 서로 중첩된다는 사실로부터 연유할 것이다. 이는 1999년 『문학동네』에 발표된 서영채의 두 편의 글에서 가장 명료한 예증을 얻는다.

먼저 「냉소주의, 죽음, 매저키즘」(1999)에서 서영채는 90년대를 대표하는 주요 작가로 신경숙, 윤대녕, 장정일, 은희경을 거론하고 이들의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로는 죽음과 냉소를 꼽는다. 그 중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냉소이다. 그에 따르면, 초국적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시장의 냉소주의와 이중성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 중요하고, 80년대식의 전면전과 달리 자기 내면에서 “분할되고 겹쳐지고 전이”되는 진실/허위의 무수한 전선들이 더욱 심중한 의미를 지닌다. 서영채는 시장의 원리에 맞서 진정성의 원리를 내면화한 개인을 가리켜 ‘냉소적 주체’라 명명하는데, 그 범례에 해당하는 90년대 소설이 은희경의 『새의 선물』(1995)이다. 잘 알다시피, 이 소설의 화자는 침대 초반의 소녀에 불과하지만 이미 어른 못지않게 조숙한 나머지 세상과 삶에 대하여 냉소로 일관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자기 보존의 욕망과 직결되어 있고, 이를 위해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스스로를 분리시켜 때로는 위악적인 자아를 연기하기도 한다. “은희경의 냉소적 주체는 시장의 냉소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의 구조를 속속들이 꿰뚫어보고 있으며, 저 우울한 시장의 리얼리즘을 몸으로 구현하고 있다. 은희경은 그들에 대한 미메시스를 통해, 90년대에 미만해 있는 환멸과 냉소의 정신들에게 서사적 발성을 위한 입과 혀를 제공한다.”<sup>18)</sup> 그런데 위악, 환멸, 냉소로 이어지는 비평적 수사는

17) 강동호, 「인표로서의 내면, 『지나간 시간들의 광장』, 문학과지성사, 2022, 284~285쪽. 1990년대 문학비평 담론에 대한 그의 새로운 문제제기와 접근방식에 관해서는 「문학이라는 시뮬라크르: 신경숙의 『외딴방』과 문학적 진정성에 대한 해체적 읽기」, 『상허학보』 69, 상허학회, 2023 참조.

18) 서영채, 「냉소주의, 죽음, 매저키즘: 1990년대 소설에 대한 한 성찰」, 『문학동네』, 문학동네, 1999;

은희경 소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은 같은 해에 발표된 또 다른 평론에서 염상섭의 중단편과 관련해 유의미하게 활용된 바 있다.

한국소설의 기원 중 하나인 염상섭의 초기 중단편에서 서영채가 뜻깊게 발견해낸 것은 “개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진정성”이며, 그 진정성을 향한 열망은 “냉정한 자기 인식과 현실 감각” 곧 냉소주의에 의해 통어된다. 그에 의하면, 이 시기의 근대소설 가운데 이른바 냉소적 주체의 전형으로 내세울 만한 인물은 「만세전」의 이인화이다. 이인화야말로 자기 내면을 냉철하게 투시하고 또 세상살이의 이면을 간파할 줄 안다고 할 때, 이러한 인물평은 다시 앞서 언급한 은희경 소설의 경우에도 무난히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199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근대문학의) 기원론과 (1990년대 이후 문학의) 내면성 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시대와 텍스트와 방법론 간의 호환이 비교적 유연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면’은 현장비평보다 문학의 기원, 근대성의 기원을 폭로함으로써 얻어진 내면성, 곧 미적 근대성이다.<sup>19)</sup> 그리고 보면, 두 편의 글에서 공히 『소설의 이론』이나 『앙티 오이디푸스』가 중요하게 참조되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sup>20)</sup> 이듬해에 발표된 「왜 문학인가: 문학주의를 위한 변명」(2000)만 하더라도 ‘진정성의 원리’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김인숙, 공지영, 신경숙, 윤대녕, 김영하 등의 90년대 작가들과 이광수 같은 근대 작가가 서로 밀착되어 논의되고 있다.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146쪽.

19) 염상섭 문학에 대해 논한 「염상섭의 초기문학의 성격에 대한 한 고찰」(『문학사와비평』 5, 문학사와비평연구회, 1998)은 위의 평론들보다 앞서 발표되었다.

20)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① “『소설의 이론』의 루카치가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용어를 차용하여 아 이러나라 불렀던 것, 곧 성숙한 남성의 형식으로서의 소설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바로 그것에 다름 아니다. …(중략)… 염상섭의 저 차가운 낭만주의는 근본적으로 이같은 균형 감각의 산물이며, 「만세전」의 냉소주의에서 최고의 표현을 얻는다.” ② “냉소주의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자체의 본질적인 파토스이다. 이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앙티 오이디푸스』이다.” (이상 「근대성의 세 가지 파토스」); ③ “이 경우 재치란, 『소설의 이론』의 루카치가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지니고 있는 비정형성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위험인 추상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소설이 소설일 수 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한, 바로 그 재치를 일컫는 말이다. 바로 그러한 재치로서의 냉소주의가 『세』의 선물」에 활기를 부여하는 좀더 근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저 가치없는 냉소주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중략)… 『앙티 오이디푸스』의 저자들이 자본주의와 더불어 부끄러워할 일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의 그 부끄러움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와 같이 값은 매기거나 값이 매겨지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이상 「냉소주의, 죽음, 매저기즘」)

한국의 근대문학이 시작된 이후로 세 세대가 지났다.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기원의 역사가 신화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신화가 수용미학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되고 유통되고 재생산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 텍스트에 있어 시간의 축적이란 동시에 연구 역량의 축적이며 또한 다양한 해석과 오독과 비판의 축적이기도 하다. 그 과정을 통해 텍스트는 새로운 맥락 속에 편입되고 의미를 부여받고 그림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거듭 재탄생한다. 완결된 신화란 존재할 수 없지만, 모든 신화가 자신의 역사성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비평적 담론의 틀 안에서 행해지는 문학적 근대성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기원의 역사성에 대한 탐구, 자기 자신의 역사성에 대한 탐구, 자기의 기원에 대한 탐구가 시도되고 있다는 것, 혹은 그러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문학이 스스로에게 그러한 요구를 제출할 정도의 성숙에 도달했다는 한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1)</sup>

「한국소설과 근대성의 세 가지 파토스」(1999)의 서두에는 ‘기원’ 또는 ‘역사성’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 개념어의 용법이 비록 기원론의 맥락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저자의 문제의식이 기반을 둔 이론적 토대가 무엇인지는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렇듯 근대문학과 현장비평 담론이 중복되면서 ‘두 번째 시차’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 어휘, 수사, 범주가 두 영역에서 공히 활용되면서 변별되어야 할 담론장이 서로 겹쳐 보이게 된 것이다.<sup>22)</sup> 그러한 착시는 문단권력 비판론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내면, 진정성, 미적 근대성론을 동일시했고, 이로써 한편의 균열이 연쇄적으로 다른 한편의 균열을 가져왔다.

자기동일성이 해체주의의 시대에 주체 탐구와 얼마나 배치(背馳)되는가에 대해서도 황중연은 다소 당위적인 문장으로만 답변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대에서도 “자

21) 서영채, 「한국소설과 근대성의 세 가지 파토스」, 『문학동네』 19, 문학동네, 1999.

22) ‘냉소주의’를 근대문학과 90년대 현장비평에 동시적으로 적용한 비평적 효율성은 1990년대 문학/문화 연구에 대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요소 중 하나이다.

아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해야 하는 과제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 “자아의 이상이 인간의 자기 해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야 한다”라며 자아 탐구에 관한 당위성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1990년대 문학의 새로움은 물론 그 가치가 온전히 지지되기는 힘들다. 자아 중심의 휴머니즘이 여전히 인간 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과, 신경숙과 윤대녕의 내향적 소설이 1990년대 문학의 새로운 가치를 증명한다는 점은 사실 별개의 논리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자는 신념으로 주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후자는 사실로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며 휴머니즘의 가치를 옹호하고 그것을 통해 문학 본연의 가치가 확인되는 것이 1990년대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후자의 사실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은 당연하다.** 요컨대 황종연의 「내향적 인간의 진실」은 1990년대 문학의 새로움을 증명하기보다는 **(나) 한동안 잊힌 ‘근대적 개인’의 가치와 ‘근대 문학’의 가치를 신경숙과 윤대녕의 소설을 경유해 재확인한 글로 읽히는 것이 더 적당하다.** …(중략)… **(다) 자아의 개념이 의문에 부쳐지고 문학의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로 문학의 특권, 더 나아가 ‘문학하는 나의 권위를 공들여 주장한 셈이 된 것은 아닐까 하고 질문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sup>23)</sup> (강조 - 인용자)

위의 글은 여러 면에서 흥미롭게 읽힌다. 평론 「내향적 인간의 진실」에서 『문학동네』라는 문단권력과 문학주의의 징후를 간파하는 독법은 그 자체로는 매력적이다. 한 편의 평론을 통해 그가 속한 비평가 그룹의 정체성과 논리를 파악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 이후 출판상업주의의 요구 속에서 주로 신경숙이나 윤대녕 같은 내향성의 문학을 특권화하고(문단권력), 이들 소설을 고평하기 위해 자아나 내면 같은 휴머니즘의 가치를 우선시했으며(근대문학), 이는 자아와 문학 개념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논의를 도외시한 태도(문학주의)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문학주의와 휴머니즘 비판의 맥락

23) 조연정, 앞의 글, 33~34쪽.

은, 앞서 언급한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과 2015년 신경숙 표절 논란 직후에 발표된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로부터 이어지는 비평적 계보에 있다. 즉, 문학주의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되 여기에 문단권력을 가미하고, 휴머니즘 비판에 페미니즘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나)의 서술대로 「(탈주체론에 의해) 자아의 개념이 의문에 부쳐지고 (페미니즘에 의해) 문학의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되는 시점」의 비평적 산물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특히 문학동네와 관련해 “문학주의와 ‘비 이념’, 그리고 모호한 다양성이 90년대 이후 주류 문학의 주류적 정신이다. 또한 창간사에서 “천민자본주의의 ‘나’ 무분별한 상업주의의 유혹”을 비판하였으나 바로 문학동네가 승승장구하며 2000년대 이후 한국 문학산업의 거대화·과점화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sup>24)</sup>라는 천정환의 논평은 조연정 논문의 핵심 주장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그러나 (나)의 논평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에 따르면, 신경숙과 윤대녕 소설을 고평하기 위해 근대적 개인이나 근대 문학의 가치를 소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를 착종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아 중심의 휴머니즘이 여전히 인간 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과, 신경숙과 윤대녕의 내향적 소설이 1990년대 문학의 새로운 가치를 증명한다는 점은 사실 별개의 논리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근거는 황종연의 발언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해체론 시대에 시대착오적이게도 자아 탐구의 이상을 추구한다는 조연정의 논평은 오독의 우려가 있다. 「내향적 개인의 진실」에서 조연정이 주목한 부분과는 다른 맥락도 엄존하기 때문이다.

윤대녕 소설의 자아에 대한 논의에서 황종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그 내면적 경험이 자아의 투명한 현존에 도달하는 집중된 성찰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아의 근본적인 낯설음과 우연한 만남이라는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황종연은 윤대녕 소설에서 자아와 진실하게 접촉하는 일은 그 자아 혹은 자아 정체성이란

24) 천정환,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 1990년대 한국 문학장의 재편과 여성문학의 발흥」, 『역사비평』 112, 역사비평사, 2015년 가을호, 293~294쪽.

허구에 불과함을 체험하는 일과 같다“고 지적하며, 그의 소설이 ”통일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또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아“는 가상에 불과하고 ”자아의 실상은 그것의 타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 스스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는 생각을 보여준다“고 풀이한다.<sup>25)</sup>

기존의 논의에 비해 진정성의 함의를 폭넓게 이해하는 차미령에게 “진정성은 진정성이 부재한다는 인식 속에 …(중략)… 존재한다”<sup>26)</sup>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가리켜 차미령은 “부정과 역설의 진정성”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가)의 서술에서 ‘휴머니즘의 가치를 옹호’한다는 논평은 오히려 정반대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 진정성은 자기 동일성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구성을 통렬하게 자각하는 순간 자아의 내면에서 감각되는 어떤 것이다. 근대문학의 일부는 자기 동일성의 서사를 지향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조연정의 논의는 근대문학연구와 현상비평 간의 분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문학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개인, 내면, 진정성 담론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그 차이를 지워버린 듯하다. 그런데 어찌 보면 「내향적 인간의 진실」에 엄존하는 반휴머니즘 혹은 동일자의 부정에 대한 이와 같은 오독은 개별 평론가의 문제라기보다 진정성 비판 담론의 자기 정당화가 초래한 (무)의식적 맹목이라고 보는 편이 더 온당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문화론적 연구가 선언되는 과정(2장), 또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문학 연구를 탈신비화하는 과정(3장)에서 발생한 착시가 기원론과 미적 근대성론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있다.<sup>27)</sup> 그로 인해 기원론과 미적 근대성론 모두 비평적, 학문적 급진성을 박탈당함에 따라 과도한 역사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5) 차미령, 「진정성의 아포리아: 1990년대 후반 문학비평의 진정성 담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69, 상허학회, 2023, 569쪽.

26) 황중연,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30~31쪽. 차미령, 위의 논문, 567쪽에서 재인용.

27) 참고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문학연구의 급변을 가리켜 “문화론적 전회”라고 평한 류보선은 “문화연구가 그 성취를 이루는 동안 혹은 충분히 하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그래서 현재의 문화연구에서 엿볼 수 있는 과잉과 과소가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작업”을 요청한다. 류보선, 「그러므로 문제는 문학이다」, 『돈암어문학』 32, 돈암어문학회, 2017, 137~140쪽.

## 1) 기원론의 경우

기원론의 시효만료가 거의 분명해지자 김홍규는 식민지 근대성론을 비판한 일련의 평론들을 엮어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2013)를 펴냈다. 그에 따르면, 서구적 보편을 기준 삼아 내부의 경험을 단절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원론은 문제적이다. 이 책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리(公理)는, 모든 개념과 제도를 근대의 산물로 간주하는 기원론이 근본적으로 기대고 있는 ‘근대’ 자체가 이미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근대”는 그것을 버리고 역사를 논하기 어려울 만큼 기본적인 어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근대라는 술어와 그것이 동반한 유럽중심적 서사의 해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근대에 만들어진 가장 문제적인 구성물은 바로 근대라는 관념 자체다.” 김홍규의 논평은 동시대 비판 담론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우선 기원론자들은 근대라는 개념의 역사성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대목은 앞서 살펴본 대로 천정환이 기원론을 전유하는 방식을 떠올리게 하며, 그가 사용하는 근대주의라는 말도 당대 비평용어인 문학주의와 흡사한 의미 맥락과 용법을 지닌다.

그런데 김홍규의 비판은 식민지 근대성론과 내재적 발전론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음에도 과연 내발론과의 거리두기에 성공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사랑을 러브의 역어로 규정한 연구들에 맞서 그 기점을 18세기 중엽으로 교정하거나, 또는 낭만적 연애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사 속에서 도시의 발달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김홍규는 여전히 내발론의 어법을 빌려 말하고 있는 셈이다.<sup>28)</sup> 아마도 김홍규의 시선에서 식민지 근대성론이란 그저 뒤집어진 형태의 내발론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이렇듯 기원론을 일종의 전도된 내발론—연속이 아니라 단절을 강조하는—으로 간주하는 순간에 ‘세 번째 시차’가 발생한다.

1988년 (월)남북문인들의 작품 상당수가 해금되면서 점화된 대표적인 논

28) 이철호, 『『무정』의 문학사: 민족주의, 자유주의, 탈민족주의론』, 『한국문학연구』 55,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7 참조.

쟁 중 하나는 근대기점론이다. 더 정확하게는 문학사연구의 최종심급이었던 내발론의 권위가 해금을 계기로 점차 해체되면서 근대기점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졌다.<sup>29)</sup> 그런 이유로 1990년대 문학/문화 연구의 장(field)의 변화는 내발론의 해소, 기점론의 점화 그리고 기원론의 부상이라는 연쇄적 사건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기원론 붐의 끝에 이르러 그러한 경향의 연구들을 “단층적 근대성론”이라 표현한다면, 이는 두 개의 시간대를 오버랩시킴으로써 특정 시기의 방법론적 시각을 ‘본질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가 보기에 ‘단층적 근대화론’과 ‘내발론’은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욕망의 전도된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유사-내발론자의 착시는 1990년대 이후 십여 년간 꾸준히 지속된 문학/문화 연구의 흐름을 무화시킨다.

## 2) 미적 근대성론의 경우

1990년대 연구방법론을 대표하는 기원론과 문화론적 연구는 실은 하나의 반작용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월)남북문인들의 해금자료가 리얼리즘이 아니라 오히려 모더니즘의 축복이 되는 역설에 뒤이어 김우창은 「감각, 이성, 정신」(1995)이라는 제목의 이광수론을 제출했다. 이 글은 멀게는 1974년부터 시작된, 리얼리즘 혹은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화두로 한 백낙청과의 대담들로부터 자라나온 것이면서, 동시에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기원론과 문화론적 연구로 이어지게 된다.

자유연애가 하필 남녀 관계에 한정된, 관습 개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현대적 남녀 관계는 개인과 가족의 사회, 그리고 교육, 직업, 경제의 새로운 제도를 전제하여 가능하여지는 것이었다. 이광수를 비롯한 자유연애론자들의 자유연애는 이러한 개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보다 넓은 이념의 문제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인간 이해의 전환을 요구했다. 새로운 인간론의 핵심은

29) 이에 관해서는 이철호, 「해금 이후 90년대 학술장의 변동」,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2018, 12~14쪽 및 27~29쪽 참조.



사회적 의무에 의하여 규정되는 인간에 대하여, 감각적, 감정적 존재, 욕망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이광수의 자유연애의 옹호는 한편으로는 개체의 자각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개체의 근거의 일부로서의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인간의 발견에 관계되어 있다. 우리 현대 문학사에서 흔히 현대 소설의 효시로 말하여지는 『무정』은 이러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철학적 중심은 감각적 인간에 대한 자각에 있다.<sup>30)</sup>

김우창에 의하면, 자유연애는 단순히 남녀 관계만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족, 사회, 교육, 경제 전반에 걸쳐 제도를 혁신하고 또 이와 더불어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생각과 느낌과 지각의 원천이 되는 내면성의 영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로는 통제 불가능할 만큼 혼란스럽고 불가해한 것이라 해도, 도덕적 명령이나 정치적 이념의 근거를 자기 내부에서 발견하는 감각적 인간이야말로 삶의 현대성에 가장 부합하는 존재가 된다. 김우창은 감각적 삶과 관련하여 『무정』의 주요 장면들을 분석한 후, 다시 여기에 찰스 테일러가 말한 이른바 ‘표현적 전환(the expressive turn)’의 역사적 함의를 더하여, “현대적 합리성과 그 안에서의 미적 이성의 위치”를 되묻는 일—곧 미적 근대성이 지닌 의의를 역설한다.<sup>31)</sup> 제도적 합리성과 감각적 인간, 정신과 미학 간의 조화로운 통일성에 대한 요구는 잘 알다시피 김우창의 평론에서 ‘심미적 이성’이라는 개념어와 정확히 상통한다.

「문학이라는 역어」(1997)가 김우창의 논의를 매우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가령 이광수가 “감각적, 감정적 삶을 정당화한 것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서 발생하는 새

30) 김우창, 「감각, 이성, 정신, 권영민 외 공편,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김우창, 『문학과 그 너머: 현대 문학과 사회에 관한 에세이』(김우창 전집 7), 민음사, 2015, 366쪽.

31) 세계사적으로는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유행하고, 내부적으로는 해금을 계기로 카프문학, 민족문학, 리얼리즘 연구가 붐을 이루는 가운데 (탈)근대성 논의가 고조될 수 있었다. 그 성과는 대략 1993-1995년 무렵에 집중된다. 백낙청, 「문학과 예술에서의 근대성 문제」, 『창작과비평』 82, 창작과비평사, 1993; 김성기 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이선영 외,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지성사, 1995 외. 그리고 (탈)근대성론이 다시 미적 근대성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수편의 글들 중 「감각, 이성, 정신」은 상징적인 위상을 지닌다.

로운 인간 주체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sup>32)</sup>이라는 구절에서 「문학이라는 역어」와 「감각, 이성, 정신」이 서로 긴밀하게 공유하는 바가 감각적 인간 혹은 미적 근대성이라는 것은 확연하다. 더 나아가 이 글은 미적 근대성의 문제를 이광수의 초기 논설과 문학 개념의 ‘통언어적 실천(translingual practice)’ 속에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한다. 즉 감각적 인간에 대한 논의는 『무정』의 단편적인 재현을 넘어 정육론(情育論)의 맥락으로 확장되고, 이를 위해 유입된 문학 개념과 담론체계가 식민주의 기획에 연루되면서 불거진 미학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첨예하게 쟁점화된다. 이렇듯 「감각, 이성, 정신」에서 「문학이라는 역어」로 이어진 문학론은 다른 무엇보다 1990년대 문학/문화 연구의 장에서 미적 근대성론과 기원론이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잘 증언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계보는 다시 문화론적 연구와 접속함으로써 한국문학연구의 형질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문화론적 연구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그 최전선을 점유한 테마는 ‘자유연애’였다. 김동식의 「연애와 근대성」(2001)은 김우창이 제안한 자유연애의 이념, 제도, 담론이 근대문학에 미친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 글의 저자가 연애는 단순히 본능과 감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철도-신문으로 대변되는 공공영역의 네트워크와 결속”된 만큼 “친밀성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라고 역설할 때,<sup>33)</sup> 또 “연애는 역사적으로 출현한 사회적 관계”<sup>34)</sup>라고 전제할 때, 「연애와 근대성」이 앞서 언급한 두 편의 글과 맺고 있는 강한 지적 유대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서도 이 논문은 그보다 더 구체화된 일상생활의 영역—후속논의를 통해 ‘풍속’과 ‘문화’라고 통칭하게 되는<sup>35)</sup>—에서 자유연애의 이념과 실천을 핵심적으로 재구해낸다. 게다가 김동식은 신소설부터 시작해 『무정』을 거쳐 (잠정적인 결론을 통해) 1930년대 소설에 이르기까지 자유연애의 문제영역을 매우

32) 황중연, 앞의 글, 478쪽.

33)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신소설과 계몽적 논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314쪽.

34) 김동식, 위의 글, 300쪽.

35) 김동식, 「풍속, 문화, 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 19,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73쪽.

폭넓게 보여주는데, 이는 그 이후 문화론적 연구들이 보여준 다종다양한 결합, 분기(分岐), 진화에 있어 방법론적 시원을 형성한다.<sup>36)</sup>

#### 4. 기원론 이후에 남겨진 것

이러한 논의는 김우창에서 황종연, 김동식으로 이어지는 1990년대 문학/문화 연구의 단선적 계보를 작성하려는 것과 무관하다. 다만 기원론, 문화 연구, 미적 근대성론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루어낸 연구성과의 한 측면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1990년대 문학/문화 연구를 세 계열의 연속체로 가정하는 것은 도식화의 우려가 없지 않다. 또 각각의 연구가 영향 받은 이론적 원천을 고려한다면 더욱 복잡한 지적 계보를 상정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기원론, 문화론적 연구, 미적 근대성론이 공동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주고받는 가운데 점차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세 계열의 담론이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의 어느 시점부터 '망각'된 듯하다. 그 망각은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점에서 일종의 착시 혹은 시차로 이해된다.

첫 번째 시차는 근대성의 기원을 비판적으로 탐색한 이들에게 다시 근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문화론적 연구의 세대적, 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영토 내부의 기원론과 미적 근대성론을 때로는 전유하고 때로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타자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문이 요구된다. 1990년대에 도래한 새로운 문학 이념과 연구방법론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상호간에 중요한 지적 자극과 원천이었음을 상기하는 것은 그것을 망각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일이다.

36) 참고로 김동식은 『오빠의 탄생』, 『연애의 시대』, 『근대의 책임기』에 대한 서평에서 풍속 문화론적 문학 연구를 가리켜 “근대적 일상에 대한 고고학적 탐색”이라 표현한 바 있다. 이는 그 자신의 표현대로 근대성의 경험을 “술어화”하는 작업을 뜻하면서 동시에 문화연구에 내재된 ‘기원론’의 맥락을 드러내준다. 김동식, 『한국 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고고학적 탐색』, 『문학과 사회』 65, 문학과지성사, 2004년 봄호.

두 번째 시차는 근대문학과 현장비평 담론이 중복됨에 따라 변별되어야 할 담론장이 서로 겹쳐 보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2015년 신경숙 표절 논란을 계기로 제기된 이른바 문단권력 비판론은 대표적으로 『문학동네』와 그에 속하는 비평가 그룹이 개인, 내면, 진정성을 키워드로 문학주의 담론을 특권화했다는 데에 비판의 초점이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이에 해당하는 연구자비평가들이 개인, 내면, 진정성 테제를 근현대 작가들의 텍스트에 공히 적용함으로써 초래된 착종이면서, 동시에 근대문학과 현장비평 또는 식민지기와 신자유주의라는 시대 조건 간의 격차를 구별하지 않는 독법 속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차는 식민지 근대성론을 전도된 형태의 내발론으로 비판하는 논조에서 드러난다. 2013년 출간된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의 저자는 부제를 통해 식민지 근대성론과 내재적 발전론을 동시에 비판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임을 밝혀두었다. 하지만 한국학의 역사에서 오랜 격차를 지닌 두 연구방법론을 이중비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더 문제적이다. 김홍규는 자신이 속하기도 했던 과거의 내발론과 현재의 (전도된 내발론으로서의) 식민지 근대성론 모두에 대해 비판적 거리두기를 시도했으나, 실은 유사-내발론의 관점에서 기원론이 지닌 급진성 내지는 잠재성을 무화시키는 데에 집중했다.

시기상 세 번째 시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차 사이에서 공론화되었다. 따라서 이른바 ‘내발론의 역습’은 그 자신의 내재적 논리와 방법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첫 번째 시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제기되기 어려운 문학사적 퇴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내발론의 타격으로 인해,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의미에서, 기원론과 미적 근대성론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고 어느 순간 또 다시 지난 연대의 문학/문화 연구를 대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때 무엇을 더 보고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 것인가. 1990년대 이후 문학/문화 연구에 대한 논의는 지금 세 개의 시차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멈춰 있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성기 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김흥규,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 식민지 근대성론과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이중비판』, 창비, 2013.  
 이선영 외,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지성사, 1995.  
 황종연, 『탕이를 위한 비평』, 문학동네, 2012.

### 2. 논문

-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 『지나간 시간들의 광장』, 문학과지성사, 2022.  
 \_\_\_\_\_, 「문학이라는 시뮬라크르: 신경숙의 『외딴방』과 문학적 진정성에 대한 해체적 읽기」, 『상허학보』 69, 상허학회, 2023.  
 강용훈,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의 변화 양상과 또 다른 문학/비평사 서술」, 『민족문학사연구』 72, 민족문학사학회, 2020.  
 김동식, 「풍속, 문화, 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 19,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_\_\_\_\_, 「연애와 근대성: 신소설과 계몽적 논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_\_\_\_\_, 「한국 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고고학적 탐색」, 『문학과 사회』 65, 문학과지성사, 2004년 봄호.  
 김영찬, 「반복과 증언 혹은 1960년대 문학/문화연구의 문제들」, 『사이間SAI』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김우창, 「감각, 이성, 정신」, 권영민 외 공편,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류보선, 「그러므로 문제는 문학이다」, 『돈암어문학』 32, 돈암어문학회, 2017.  
 박헌호, 「문학 '사' 없는 시대의 문학연구」, 『역사비평』 75, 역사문제연구소, 2006.  
 \_\_\_\_\_, 「문화연구의 정치성과 역사성: 근대문학 연구의 현황과 반성」, 『민족문화연구』 5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0.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_\_\_\_\_,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 1980-90년대 문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백낙청, 「문학과 예술에서의 근대성 문제」, 『창작과비평』 82, 창작과비평사, 1993.  
 서영채, 「냉소주의, 죽음, 매저키즘: 1990년대 소설에 대한 한 성찰」, 『문학동네』, 문학동네, 1999.  
 \_\_\_\_\_, 「한국소설과 근대성의 세 가지 파토스」, 『문학동네』 19, 문학동네, 1999.  
 손정수, 「트로이의 목마: 문학 연구의 대중성과 자율성을 둘러싼 아포리아들」, 『문학동네』 39, 문학동네, 2004.  
 안지영, 「문학' 혹은 '근대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 (포스트)진정성'의 탈구축과 90년대 미적 근대성 비판」, 『상허학보』 63, 상허학회, 2021.  
 이경훈, 「오르페우스의 변명」, 『대합실의 추억』, 문학과지성사, 2007.  
 이광호, 「모순으로서의 한국문학사」, 『미적 근대성과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1.  
 이철호, 「『무정』의 문학사: 민족주의, 자유주의, 탈민족주의론」, 『한국문학연구』 55,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7.  
 \_\_\_\_\_, 「해금 이후 90년대 학술장의 변동」,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2018.

- 조연정, 「'문학주의'의 자기동일성: 1990년대 『문학동네』의 비평 담론」, 『상허학보』 53, 상허학회, 2018.
- 차미령, 「진정성의 아포리아: 1990년대 후반 문학비평의 진정성 담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69, 상허학회, 2023.
- 천정환, 「새로운 문학연구와 글쓰기를 위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학사학회, 2004.
- \_\_\_\_\_,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 \_\_\_\_\_, 「탈근대론과 한국 지식문화(1987-2016): 전개 과정과 계기들」, 『민족문학사연구』 67, 민족문학사학회, 2018.
- \_\_\_\_\_,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 1990년대 한국 문학장의 재편과 여성문학의 발흥」, 『역사비평』 112, 역사비평사, 2015년 가을호.
- \_\_\_\_\_, 「2019 한국 문화연구, 현황과 과제」, 『안과 밖』 46, 영미문학연구회, 2019.
- 황종연, 「문학이라는 역어: '문학이란 何오' 혹은 한국 근대 문학론의 성립에 관한 고찰」, 『동악어문논집』 32, 동악어문학회, 1997.

#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since the 1990s and Its Parallax

- origins theory, cultural studies, and aesthetic modernity -

Lee Chul-Ho\*

The main problem is that since the 1990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overlap between the discourses of modern literary studies and field criticism, as well as an overlap between individual critics and researchers. The first is manifested in the way that those who have critically explored the origins of modernity are criticized for failing to escape from modernism again; the second is manifested in the way that the overlap between modern literary studies and field criticism discourses has led to the overlapping of discursive fields that should be distinguished; and the third is manifested in the way that colonial modernity theory is criticized as an inverted form of internalization. This is not to suggest that these illusions underestimate or denigrate the contributions of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in the 1990s. Rather, by reversing the hierarchy of debate and simplifying the differences between discourses, it may hinder a more productive discussion of the period. Moreover, in a context not unrelated to this illusion, some of the major achievements in literary studies accumulated in the last two decades through theories of origins, cultural studies, and aesthetic modernity have had to confront the rapid loss of radicality.

**Key words:** post-1990s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origins theory, cultural studies, aesthetic modernity, parallax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23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1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22일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